

# 타지키스탄의 농업현황과 시사점 \*

이 윤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1. 일반연왕

### 1.1. 일반·정치외교 연왕

타지키스탄(Republic of Tajikistan)은 중앙아시아 국가로 동쪽으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하고 있다. 면적은 14만 3,100km<sup>2</sup>로 한반도의 약 2/3정도이며, 북부의 트란스알레이산맥과 남부의 파미르고원을 중심으로 하는 산악지형으로 국토의 93%가 산악지역이다. 또한 모든 국토가 최저 해발 300m이상에 위치하고 있다. 기후는 온화한 대륙성기후를 지니고 있으며,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온화한 편이고, 봄과 가을에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또한 건조기후부터 파미르고원의 극지성기후까지 다양한 기후대를 보이고 있다.

인구는 2012년 기준으로 780만 명으로, 여성이 50.3%, 남성이 49.7%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 구성을 살펴보면 14세 이하가 34.3%, 15-64세 62.1%, 65세 이상이 3.6%를 차지하고 있다. 민족은 타직인(79.9%), 우즈베크인(15.3%), 러시아인(1.1%), 키르기즈인(1.1%)과 기타민족(2.6%)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는 공식어로 타직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페르시아어 계통으

\* (yjlee401@krei.re.kr)

로 투르크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종교는 이슬람교가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수니파가 85%이다.

그림 1 타지키스탄 지도



자료: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juri1540?Redirect=Log&logNo=80019612888>).

타지키스탄의 수도는 두산베(Dushanbe)로 약 75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의 행정구역은 12개의 주(가름, 이스파라, 히소르, 후잔드, 코파르니혼, 코니보돔, 쿨압, 무르고프, 쿠르곤텡과, 판자켄트, 파르하프, 투르순조다), 1개 자치공화국(고르노바다흐산)과 1개 특별시(수도인 두산베)로 구성되어있다. 타지키스탄은 1991년 9월 구소연방으로부터 독립 후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대통령이 국가원수이다.

타지키스탄은 다른 CIS국가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1993년 타지키스탄과 러시아 간에 군사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양국은 아프가니스

---

탄 및 중국과의 국경수비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교역 및 투자 면에서도 러시아는 타지키스탄에 가장 중요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타지키스탄 국민의 80% 이상이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약 50만 명의 타지키스탄 국민들이 러시아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으며, 외환 송금을 통해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타지키스탄 국민들의 친러시아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타지키스탄은 국제테러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서 미국의 역할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미국은 9·11 사태 이후 아프가니스탄 및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타지키스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더불어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방어차원이다. 미국은 각종 원조를 통하여 타지키스탄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타지키스탄에 매년 약 5,000만 달러 수준의 투자 및 인도적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2004년 타지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5개국과 무역 및 투자협정을 맺은 이후 타지키스탄에 대한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인접국인 우즈베키스탄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데 주요 갈등의 원인은 사마르칸트(Samarkand) 문명의 역사적 소유권 문제, 자국 민족문제, 수자원 이용 문제, 오쉬(Osh) 지방과 페르가나(Fergana) 계곡을 둘러싼 영토문제 등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국 간 관계는 양호하며 독립국가연합(CIS)<sup>1)</sup> 및 상하이협력기구(SCO)<sup>2)</sup> 등 지역협력기구를 통해 상호 이견 등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 시행된 무리한 경계 구분으로 인해 타지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복잡한 민족분쟁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특히나 민족분쟁이 빈곤문제와 결합되면 민족적 감정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타지키스탄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된다. 이러한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타지키스탄은 군대와 국경수비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은 타지키스탄의 내분이 자국 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국의 국경수비대를 타지키스탄에 파견하기도 하며,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을 강화해 테러단체, 마약 및 무기 등이 타지키스탄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1991년까지 구소련방의 일원이던 독립국들.

2) SCO(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상하이협력기구): 2001년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설립한 정치, 경제, 무역, 과학기술, 에너지,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의 효율적인 협력 관계 구축, 평화 안보 구축, 새로운 경제질서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간 기구.

## 1.2. 경제·사외 연황

타지키스탄의 주요 산업은 서비스업으로 GDP대비 약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23%, 농업이 21%를 차지하고 있다(2013년 기준). 타지키스탄에는 무연탄, 구리, 원석, 금, 철광석, 천연가스, 니켈, 텅스텐, 우라늄, 아연 등의 주요 광물자원이 있으며, 금속류, 희토류, 우라늄, 알루미늄 등의 자원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다. 최근 정부는 90년대 소련 붕괴이후 급격한 하락 추세였던 광물산업의 발전과 생산량 증대를 위해 노력 하고 있어 외국자본 투자를 유치하는 등 이러한 광물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정책(화석연료의 사용과 천연가스 수입 등)은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최근 탄화수소의 매장지가 발견됨에 따라 에너지난이 점차 해소되고 경기회복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알루미늄, 전력, 면화, 과일, 의류 등이 있으며, 석유제품, 알루미늄, 기계 및 설비, 식료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표 1 타지키스탄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국내 경제	GDP	억 달러	65	76	85	92	97
	1인당 GDP	달러	836	953	1,045	1,103	1,143
	경제성장률	%	7.4	7.5	7.4	6.0	6.0
	재정수지/GDP	%	-2.1	0.6	-0.8	-0.6	-1.3
	소비자물가상승률	%	12.4	5.8	5.0	6.6	8.3
대외 거래	환율(달러당, 연중)	S <sup>3)</sup>	4.6	4.7	4.8	..	..
	경상수지	백만 달러	-310	-111	-118	-429	-349
	상품수지	백만 달러	-2,976	-3,557	-3,806	..	..
	수출	백만 달러	593	826	794	..	..
	수입	백만 달러	3,569	4,383	4,600	..	..
	서비스수지	백만 달러	-106	-72	..	..	..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289	298	311	..	..
외채 현황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3,323	3,379	3,477	3,730	3,927
	단기외채	백만 달러	129	136	307	..	..
	총외채잔액/GDP	%	50.9	44.5	40.7	40.4	39.2
	외채상환액/총수출	%	15.3	7.4	7.2	6.7	6.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5).

3) Somoni, 타지키스탄 소모니.

2014년 타지키스탄의 GDP는 9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1년 65억 달러, 2012년 76억 달러, 2013년 85억 달러에 비하여 증가한 수치로 GDP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15년에는 8297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타지키스탄은 구 소연방 국가들 중 가장 낮은 GDP를 보이고 있다. 1인당 GDP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 836달러, 2012년 953달러, 2013년 1,045달러, 2014년 1,103달러를 기록하였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2014년 6.0%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7.4%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수출액은 2011년 5억 9,300만 달러, 2012년 8억 2,600만 달러, 2013년에는 다소 하락한 7억 9,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액의 경우, 2011년 35억 6,900만 달러, 2012년 43억 8,300만 달러, 2013년 46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1.3. 우리나라와의 관계

타지키스탄은 우리나라와 1992년 4월 27일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북한과 1992년 2월 5일 수교를 맺었다. 우리나라와 타지키스탄은 1995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과 타지키스탄 간의 교역규모는 2011년 1,092억 9,900만 달러에서 2012년 428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3년 444억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타지키스탄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타지키스탄으로부터 수입하는 교역규모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 건설광산기계, 합성수지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품목은 알루미늄, 종이제품, 반도체 등이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 타지키스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개의 법인이 진출하였으며, 총 5,981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주로 면직물과 관련된 분야 혹은 건설 분야에 진출하였으며, 아시아개발은행의 차관으로 농업재건프로젝트의 일환인 관개수로 공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표 2 한-타지키스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1	2012	2013	주요 품목
수출	37,429	38,108	44,299	자동차, 건설광산기계, 합성수지
수입	71,870	4,620	187	알루미늄, 종이제품, 반도체
교역 규모	109,299	42,800	44,48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5).

## 2. 농업연망

### 2.1. 농업여건

타지키스탄의 농업은 2014년 기준 GDP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11%, 고용인구의 약 2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에는 약 35%, 2004년 약 31%, 2009년 약 28%에 비하여 농업 종사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총 인구 중 농촌인구의 비율은 약 73%(2014년 기준)로 매우 높은 편이며, 타지키스탄 인구의 대부분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농촌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2008년 기준으로 76%의 인구가 하루에 2.15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표 3 타지키스탄 노동 인구

	인구 (단위: 백만 명)			
	1999	2004	2009	2014
전체 인구	6.09	6.66	7.45	8.41
노동 인구	1.73	2.23	2.99	3.63
농업 분야 노동 인구	0.60	0.70	0.84	0.91
총 노동인구 중 농업종사자 비중(%)	35	31	28	25

자료: FAOSTAT Database.

2012년 기준 타지키스탄의 국토면적은 약 1,426만 ha이며, 이중 약 1,400만 ha가 육지 면적이며, 농지는 약 488만 ha 육지 면적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농지 중 약 86만 ha가 경지면적이며, 약 140천 ha에는 영구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영구 초지는 약 388만

표 4 타지키스탄 토지면적 구조

단위: 천 ha

구분	2012
육지면적(Land Area)	13,996
농업지역(Agricultural Area)	4,875
경지면적(Arable Land)	860
영년식물(Permanent Crops)	140
영구목초(Permanent Pasture)	3,875
관개농지(Irrigated Area)	742
전체 국토 면적	14,255

자료: FAOSTAT Database.

ha이며 관개면적은 약 74만 ha로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인구 당 관개 토지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표 5 타지키스탄 1ha당 작물 생산가치

단위: USD

	생산액				성장률 (%)		
	1997	2002	2007	2012	1997 -2002	2002 -2007	2007 -2012
1ha 당 작물 생산 (달러)	643	891	1,076	1,278	6.74	3.85	3.5
전체 농산물 생산(백만 달러)	746	1,027	1,299	1,778	6.6	4.81	6.48

자료: FAOSTAT Database.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2012년 기준 타지키스탄의 1ha당 생산액은 1,278달러이다. 1997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643달러, 2002년 891달러, 2007년 1,076달러, 2012년 1,278달러를 기록하여 생산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생산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 농산물의 생산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2.2. 농축산물 생산

타지키스탄의 농업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생산량을 기준으로, 감자가 99만 1,044톤으로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있으며, 밀(81만 2,588톤), 우유(70만 9,000톤), 수박(70만

표 6 타지키스탄 농업 생산 현황(2012년 기준) - 생산량 기준

순위	상품	생산량(톤)
1	감자	991,044
2	밀	812,588
3	우유	709,000
4	수박	465,000
5	양파	371,200
6	토마토	328,800
7	신선야채	257,600
8	당근	253,400
9	목화씨	225,000
10	사과	218,300

자료: FAOSTAT Database.



9,000톤) 양파(37만 1,200톤) 등이 생산되고 있다.

생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생면이 1억 7,293만 달러로 가장 높은 생산액을 보이고 있으며, 감자(1억 3,700만 달러), 양고기(약 1억 2,280만 달러), 토마토(1억 2,150만 달러), 우유(1억 858만 달러), 포도(9,551만 달러) 등의 생산액이 높다. 감자의 경우, 생산량과 생산액에서 모두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파, 토마토, 사과 등의 과채류도 타지키스탄의 주요 생산품이다.

표 7 타지키스탄 농업 생산 현황(2012년 기준) - 생산액 기준

순위	상품	생산액(천 달러)
1	생면	172,934
2	감자	137,000
3	양고기	122,812
4	토마토	121,513
5	우유	108,581
6	포도	95,518
7	소고기	91,843
8	양파	77,964
9	사과	53,235
10	당근	52,744

자료: FAOSTAT Database.

### 2.3. 농축산물 교역

타지키스탄은 밀이 주요 생산품임에도 불구하고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밀가루, 사탕수수, 정제설탕 등을 수입하고 있다. 이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재배기술 및 기계화 미비 등의 문제로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축산 분야에서는 닭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그 외로 면실유, 해바라기유 등을 수입하고 있다. 전통적인 농업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주곡을 비롯하여 식용유, 육류 등을 다량 수입하고 있다.

수출 품목으로는 수출량 기준 양파가 7만 100톤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면화(3만 9,833톤), 건과일(3만 3,395톤), 토마토(1만 2,300톤), 신선과일(2,868톤), 포도(2,514톤), 신선채소(1,100톤), 과일 주스(995톤) 등을 수출하고 있다. 양파와 면화를 제외하고는 주로 신선과채류가 주요 수출품목이며, 과일을 이용한 건조 및 가공식품을 수출하고 있다.



---

수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면화(1억 1,277만 달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양파, 건과일, 토마토, 포도, 신선과일 등이 있다. 수출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양파와 면화를 제외하면 과일류가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으며, 특히 포도는 타지키스탄의 주요 수출품이다(FAOSTAT 2015).

## 2.4. 투입재 및 수자원 이용 현황

타지키스탄의 비료 사용량은 2008년 1ha당 57kg으로 한국(336kg/ha)의 17% 수준이다. 이는 저소득 국가군 평균 25kg보다는 높지만 중간소득 국가군 평균 176kg과 비교하여 적은 실정이다. 또한 경지면적 1,000ha당 사용되고 있는 트랙터는 18.31대이며, 콤바인은 0.87대이다. 이는 2003년 트랙터 25.18대, 콤바인 1.27대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FAOSTAT 2015).

타지키스탄은 아무다리야(Amu Darya)강 유역, 시르다리야(Syr Darya) 강 유역과 남서 지역의 작은 강들 등 3개의 주요 강 유역이 있다. 수자원의 연간 80~90%를 관개와 축산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5%정도를 산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AQUASTAT 2015).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타지키스탄 역시 아무다리야(Amu Darya)강과 시르다리야(Syr Darya)강을 주요 수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국가들 간에 수자원 이용에 대한 이슈가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8~9월경 물이 부족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댐 등의 건설이 필요하다(AQUASTAT 2015).

## 2.5. 농업개발을 위한 국가 정책

타지키스탄 정부는 농업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인 ‘농업개혁프로그램 2012-2020’을 수립하기 이전에 타지키스탄의 농업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타지키스탄의 ‘농업개혁프로그램 2012-2020’은 타지키스탄의 ‘국가개발전략 2015(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15)’, ‘빈곤감소전략 2010-2012(Poverty Reduction Strategy for 2010-2012)’, ‘식량안보프로그램 2015(Food Security Programme up to 2015)’에서 언급하는 농업 분야의 개발 및 발전 목표에 따라 수립되었다.

‘국가개발전략 2015(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15)’에서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정책을 재수립하고, 생산 분야에서의 현대화 및 다각화, 식량안보 보장 및 토지와 수자원 등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환경보호 등의 큰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분야에서는 민간부문의 역량을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수자원과 토지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지

재정비와 관련 설비의 현대화 등의 세부목표를 수립하였다.

‘빈곤감소전략 2010-2012(Poverty Reduction Strategy for 2010-2012)’에서는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빈곤을 감소하기 위하여 생산성 향상을 주요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기반시설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농가에게 자유(Freedom to Farm)”이라는 모토 아래 농가들이 생산할 작물, 시장에 필요한 작물, 판매할 작물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자와 구매자 간의 수요를 기반으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식량안보프로그램 2015(Food Security Programme up to 2015)’은 농업부문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하여 식량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특히 취약계층에게 건강한 식량을 공급하며 식량공급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식량공급과 관련하여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식량안보에 관한 기술적인 규제를 발전시키는 등의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생산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시키며, 농민들이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토지 소유권을 정리하는 등의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다. 특히 장기 토지 이용권을 상속, 거래, 전환이 가능하게 하는 등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분야에 초점을 두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국가개발 전략들을 토대로 ‘농업개혁프로그램 2012-2020’을 수립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의 주요 발전 전략 및 목표를 설정하였다. 주요 정책 목표로는 1) 농장 개혁 및 재조직화, 2) 농작물 생산 향상, 3) 농업부문에서의 재정적 안정화, 4) 농업부문 다각화 및 집중화, 5)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협회의 조직화, 6) 농산품 시장진출을 위한 포장기술 역량 강화, 저장 및 창고 시설 구축, 7)농업부문의 민간기업 발전 지원, 8)관개시설 강화, 9) 토지소유권 및 부동산 문제, 10)농업 경영 기관 개혁 등 총 22개의 세부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농업개혁프로그램 2012-2020’의 주요 수행주체는 농업부이며, 경제발전부, 재정부, 노동부, 환경부, 국토수자원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Government of Tajikistan 2012).

### 3. 시사점

타지키스탄의 농업은 전체 GDP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인구 중 농촌인구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높은 비중의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전

---

체 노동인구 중 2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농촌에서의 발전이 국가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타지키스탄은 국가개발전략에서 식량안보 보장 및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을 위한 환경보호 등 농업부문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 외에도 빈곤감소 전략과 식량안보 프로그램에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빈곤감소를 위한 농업분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식량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산성 향상을 세부목표로 수립하였으며, 이를 이루기 위하여 토지를 재정비하고 생산관련 인프라구축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국가개발전략에 맞추어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은행(EBRD)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정비, 관개수로 공사, 토지정리 등의 분야에서 국제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경우, 타지키스탄의 관개수로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유럽부흥은행은 타지키스탄의 토지 정리 및 토지의 소유권 문제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對타지키스탄의 농업 분야 국제협력사업 사례는 거의 없지만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농업협동조합, 농지제도 및 관리 등의 프로그램은 타지키스탄의 '농업개혁프로그램 2012-2020'에서 수립한 목표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 우리나라의 경험을 잘 전수하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타지키스탄에서 농업분야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시에 특히 고려해야할 부분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참여이다. 근래에 들어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농촌에서의 노동인구 비중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젊은 층의 노동인구가 주로 이주하고 있어 농촌 노동인구의 평균연령이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타지키스탄의 무슬림의 일부다처제 문화로 인하여 취약계층인 두 번째 부인들은 아이들과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여성의 노동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토지상속이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두 번째 부인과 아이들의 경우,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을 가질 수가 없다. 또한 취약계층인 여성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관개 시설, 배수시스템 등의 이용과 제도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 분야에서 국제협력사업 수행 시에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평등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혜자의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양성 평등의 경우 범분야이슈<sup>4)</sup>이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타지키스탄의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 외교부. 2008. 타지키스탄 국가 개황. 서울. 외교부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5. 2014 세계국가편람.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 Frank Bliss. 2012. *Agrarian Reform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 A Roadmap for Local Governance and Agriculture Managment Institution Reform*. Dushanbe. FAO
- Government of Tajikistan. 2012. *The Agriculture Reform Programme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for 2012-2020*. Dushanbe. Government of Tajikistan
- USAID. 2010. *Tajikistan Profile -Property Rights and Resource Governance*. Washington D.C. USAID
- Zvi Lerman. 2012. *Agrarian Reform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Farm Reform and Restructuring Cooperative Development Report*. Rehovot. Ministry of Agriculture

### 참고사이트

-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juri1540?Redirect=Log&logNo=80019612888>)
- 세계은행 ([www.worldbank.org](http://www.worldbank.org))
- 주타지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http://tjk.mofa.go.kr/korean/eu/tjk/main/index.jsp>)
- AQUA STAT (<http://www.fao.org/nr/water/aquastat/main/index.stm>)
- FAO STAT ([faostat.fao.org](http://faostat.fao.org))

---

4) 국제개발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분야(젠더, 거버넌스 등) 중 빈곤층의 삶의 질 혹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슈로 크로스커팅(Cross-cutting)이슈로 불리기도 함. 공여국에 따라 젠더, 환경, 참여적 개발, 인권, HIV/AIDS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OECD/DAC는 젠더, 환경, 거버넌스를 정책마커로 지정하였음.